

三焦와 東醫壽世保元 四焦의 比較考察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 教室

李敬愛 · 朴性植 · 李源哲

I. 緒 論

東武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저술한 지 1세기가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四象醫學은 일부의 관심사였으나 요즘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臨床에 있어서 그 응용 폭이 확대되었으며, 그 學理에 대해서도 質的, 量的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四象醫學에 대한 이해가 四象哲學에 기초하지 않고 內經이나 周易을 이해수단으로 삼고 있어 그 뜻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疾病을 관찰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기존의 醫學이 인간 개개인의 性情과 體質的 特性에는 관계없이 단지 疾病에 대한 인체의 陰陽的 虛實상태와 疾病자체의 속성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四象醫學은 疾病자체의 속성보다는 인간 개개인의 특수성이 疾病에 대하여 어떻게 作用과 反作用을 일으키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¹⁾

그러나, 기존의 證治醫學과 四象醫學은 모두 인체의 氣를 추구하는 醫學이라는 점에서는 그 脈絡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인체에 작용하는 氣의 작용을 기존의 證治醫學에서는 세 구역으로 나누어 三焦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 四象醫學에서는 네 구역으로 나누어 四焦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四象醫學에 대한 관심도 높고 연구가 활발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用語나 原理의 이해가 많이 부족하여 기존의 證治醫學的 視覺에서 탈피하

지 못하면 그 뜻이 막연하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三焦와 四焦의 理解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論者는 證治醫學에서의 三焦와 四象醫學에서의 四焦를 思想的 背景, 部位, 作用面에서 그 차이점을 考察하고 어떠한 概念으로 이해되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本 論

2.1. 三焦의 思想的 背景, 部位 및 作用

2.1.1. 思想的 背景

三焦에 대한 文句는 內經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다. 內經에 三焦를 말한 곳이 매우 많으나 내용이 서로 다르고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곳도 있다.²⁾ 무엇보다도 인체내에서 三焦라는 器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後世에 이에 대한 論爭이 많아 三焦는 內經에서 현재까지 한의계에서 논쟁이 가장 많았던 문제중의 하나이며 지금에도 통일된 見解가 없다.

<難經>에서는 三焦를 “有名無形”³⁾이라 하였으며 “原氣之別 主持諸氣”⁴⁾ “水道之道路 氣之所終始”⁵⁾가 된다 하여 三焦의 중요성을 높였는데 이로 인해 後世에 많은 論爭을 일으키게 되었다. 즉 宋代에 이르러 陳無擇이 먼저 三焦의 “有名無形”說에 반대하여 三焦는 脂膜이라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明清代에는 三焦의 有無形 與否와, 有形이라면 그 形態의 문제에 집

중되었다.無形을 주장하는 쪽은 대체로 命門相火나 腎間動氣와 연관시켜 三焦를 일종의 原氣로 보았고,有形을 주장하는 쪽은 대체로 陳無擇의 脂膜說에 근거하여 腹腔뒤,脊椎에 附着되어 있는 ‘鷄冠油’를 三焦라 하고 혹은 肌膚의 腠理,五臟六腑외에 신체내의 大包,淋巴管이라고까지 하였다.⁶⁾

그러나 三焦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決瀆之官 水道出焉”의 의미로 膀胱과 관련되어 있는 一條의 ‘水道’라는 의미와,다른 하나는 三焦를 인체의 三部位의 名稱에 응용하는 것이다.또 三焦는 六腑의 하나로서 獨立된 內臟組織이 아니라 인체의 臟腑機能을 포괄하는 의미이며,또한 上中下部로 나뉘는 人體 部位의 의미도 갖는다.⁷⁾ 즉 三焦는 非正臟正腑이며 有名無形으로서 全身의 생리기능을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三焦란 狹義로는 膀胱과 관련된 ‘水道’라는 의미를 가지며 廣義로는 相火之用以로 全身 生化過程이 나타나는 空間의 구역 나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三焦氣化란 인체가 生命을 營爲하기 위하여 臟腑의 氣能作用,氣血의 輸布,氣의 升降開閉 등 인체의 氣機의 運行變化를 표현하는 것으로 水液代謝調節 및 全身의 생리기능조절과 관련된 협조체계에 해당된다.

2.1.2. 部位

많은 문헌에서 三焦의 부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그러나 여기서는 三焦有形說⁸⁾에 대하여는 제외하고 살피고자 한다.우선 <靈樞.營衛生會篇>에서는 “上焦出於胃上口 并咽以上 貫膈而布胸中 走腋 循太陰之分而行 還至陽明 上至舌...中焦亦并胃中 出上焦之後...下焦者 別迴腸 注於膀胱而滲入焉”⁹⁾이라 하여 三焦의 부위와 경로를 이야기하였다.또 <難經.三十一難>에서는 “上焦者 在心下 下膈在胃上口...中焦者在胃中脘 不上不下...下焦者 當膀胱上口”¹⁰⁾라고

하여 三焦의 부위에 대해 논술하였다.

上焦는 膈以上の 胸部로 心,肺와 頭面部를 포괄하며 인체의 上肢도 이에 속한다.中焦는 膈以下 臍以上の 上腹部를 가르키는데 <靈樞.營衛生會篇>¹¹⁾에 의하면 胃전체 즉 胃의 上口에서 胃의 下口에 이르는 부위를 말한다.下焦는 胃以下の 部位와 臟器로 小腸,大腸,腎,膀胱 등이 이에 속한다.또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三焦病變을 말한다면 대체로 上焦는 心肺咽喉와 頭部の 病變을 말하고,中焦는 脾胃病變을,下焦는 肝腎과 大小腸,膀胱病變을 가리킨다.실제에 있어 三焦의 이러한 개념은 신체의 上,中,下 三部分의 部位名稱이 되어 버렸다.¹²⁾

2.1.3. 作用

三焦에 대한 有形,無形에 대한 의견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 주요 生理機能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치된 점이 있다.중요한 것은 三焦가 어떤 實質的 臟器에 속하는가가 아니고 三焦의 生理,病理學上的 意義를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三焦의 주요 生理機能은 크게 通行元氣,水液 運行의 道路로 나눌 수 있다.그러나,이러한 三焦의 두 기능은 상호관련이 있다.水液의 運行은 全的으로 氣의 升降出入에 의존하며 또한 인체의 氣는 血,津液에 의지해 존재하기 때문이다.氣의 升降出入의 通路는 반드시 血 혹은 津液의 通路가 되며 津液의 升降出入의 通路는 반드시 氣의 通路가 된다.실제에 있어 한 가지 機能의 두 가지 側面이 있을 따름이다.¹³⁾

1) 全身의 氣機와 氣化를 담당

三焦는 氣의 升降出入의 通路,氣化의 장소로 全身의 氣機와 氣化를 주관한다.元氣는 인체의 가장 근본인 氣로 腎에 근거하는데 이는 三焦를 통해 全身에 이르게 된다.

<難經31難>에서는 “三焦者 氣之所終始也”¹⁴⁾라 했고 <難經38難>에서는 三焦를 “有

原氣之別焉 主持諸氣”¹⁵⁾라 했으며, <難經66難>에서는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五臟六腑”¹⁶⁾(여기서 “三氣”란 宗氣, 衛氣, 營氣를 말한다.)라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三焦가 氣의 升降出入의 通路이며 人體의 氣가 三焦를 통해 五臟六腑에 이르고 全身에 充滿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런데 三焦의 氣化作用은 命門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므로 命門의 火가 三焦氣化作用의 기초라 할 수 있다. 반면에 命門의 元氣는 三焦의 氣化作用下에서 肌表와 全身으로 通達하게 되는 것이다.¹⁷⁾ 또한 <靈樞.決氣篇>에서는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 充身 澤毛 若霧露之溉 是謂氣...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是謂血”¹⁸⁾이라 하였으며 <靈樞.營衛生會篇>에서는 “中焦...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¹⁹⁾이라 하여 三焦가 全身을 충만시킴을 잘 설명하고 있다.

<醫學入門>²⁰⁾에서는 “上焦出主陽氣 溫於皮膚分肉之間 若霧露之溉焉 故曰上焦如霧, 中焦主變化水穀之味 其精微上注於肺 化而爲血 行於經隧 以榮五臟周身 故曰中焦如漚, 下焦主通利溲便 以時傳下 出而不納 開通秘塞 故曰下焦如瀆也 又曰決瀆之官水道出焉”이라고 하여 氣化作用을 概括적으로 설명하였다.

<華佗中藏經>²¹⁾에서는 “三焦者 人之三元之氣也 號曰中清之腑營衛經絡內外左右上下之氣也 三焦通則內外左右上下皆通也 其於周身灌體和內調外 榮左養右 導上宣下 莫大於此者也 又名玉海水道 ... 名雖三而歸一 有其名而無形者也 亦號曰孤獨之腑而衛出於上榮出於中 上者絡脈之系 中者經脈之系也 下者水道之系也 亦又屬膀胱之宗始 主通陰陽 調虛實”이라고 하여 三焦의 作用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上, 中, 下焦의 作用은 결국 하나로 歸結된다고 하였다.

<諸病源候論>²²⁾에서는 “上焦之氣出於胃上口并咽...常與營衛俱行 主內而不出也. 中焦之氣亦并於胃口 出上焦之後 此受氣者 泌糟粕承津

液 化爲精微 上注肺脈 乃化爲血 主不上不下也. 下焦之氣別廻腸注於膀胱而滲入焉 主出而不納 故水穀常并居於胃 成糟粕而俱下於大腸也 謂此三氣焦乾水穀 分別清濁 故名三焦 三焦爲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也.”라고 하여 上, 中, 下焦가 主內而不出, 主不上不下, 主出而不納하는 각기 다른 작용으로 人體의 氣化를 담당함을 설명하였다.

2) 水液運行的 통로

<素問.靈蘭秘典論>의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²³⁾은 三焦가 水道를 疏通하고 水液을 運行하는 작용이 있으며 水液升降出入의 通路가 됨을 설명한 것이다. <靈樞.本輸篇>에서는 三焦가 “中瀆之腑”²⁴⁾라 하여 三焦에는 水液代謝 가운데에서 水道를 通調케 하고 排尿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全身의 水液代謝는 肺, 脾胃와 腸, 腎과 膀胱 등 많은 臟腑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三焦를 통한 후에야 정상적인 升降出入이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三焦의 通利水道作用이 원활치 않으면 肺, 脾, 腎 등의 水液을 輸布, 調節하는 작용이 生理的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水液代謝의 協調平衡作用을 “三焦氣化”라 부른다.²⁵⁾

3) 上, 中, 下焦 각각의 氣化作用

三焦의 기능은 上, 中, 下의 部位로 구분되며 五臟六腑를 포괄하는 의미로서 各其 包括하는 臟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기능은 水穀精微의 化生 및 水液의 代謝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氣化作用을 거쳐서 완성되어지므로 三焦는 人體의 氣化作用을 총괄적으로 담당한다고 하는 것이다. 上, 中, 下焦 각각의 氣化作用은 이른바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으로 概括할 수 있으며 이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① 上焦

上焦의 생리특징은 ‘開發’, ‘宣化’, ‘若霧露之溉’라 할 수 있다.²⁶⁾ 上焦는 氣의 升發과 宣散을

주로 하되 有升無降이 아니라 '升已而降'하니 '若霧露之溉'라 하는 것이다.²⁷⁾

上焦는 呼吸을 담당하고 中焦의 脾胃로부터 오는 水穀의 精微로운 기운을 받아 血液循環을 주관하며 肺의 宣發, 肅降기능을 이용하여 水道를 通調케 하고 膀胱으로 내려보내는 작용을 한다. 그 중 精微로운 氣를 體表뿐만 아니라 體內的 여러부위로 散布시켜 養臟腑, 溫分肉, 充腠理, 濡關節, 熏膚, 充身, 澤毛하며 또한 水精을 全身의 各處로 散布하는 가운데서 그 精濁한 성분은 水道를 通調케 하는 기능에 의해 膀胱으로 내려 보내기도 한다.²⁸⁾ <靈樞.營衛生會篇>에서는 上焦를 “上焦如霧”²⁹⁾라 표현하였는데 霧露가 水分을 全面에 散布하듯이 陽氣를 全身에 散布시킨다는 의미이다.

② 中焦

中焦는 실제로 脾胃運化機能 전체를 포괄하므로 中焦의 생리특징은 '泌糟粕 蒸津液'이라 할 수 있으며³⁰⁾ 이는 升降之樞이자 氣血生化의 根源이 된다.³¹⁾

中焦의 작용은 胃가 水穀을 받아 들이고 그것을 腐熟시킨 다음 脾의 運化作用에 의해 水穀으로부터 精微로운 氣가 생겨나며 이로써 氣血이 化生한다. 한편 水穀의 精微로운 氣運은 위로 올라가서 上焦의 心肺기능을 통하여 全身을 濡養하게 된다.³²⁾ <靈樞.營衛生會篇>에서는 中焦를 “中焦如漚”³³⁾라 표현하였는데 이는 五臟과 全身을 營養하여 적시는 것을 의미한다.

③ 下焦

下焦의 생리특징은 '成糟粕'과 '尿液의 排泄'이라 할 수 있다.³⁴⁾ 肝腎精血, 命門原氣 등은 모두 下焦에 속하는 것으로 下焦의 생리특징은 광범위하다.³⁵⁾

下焦는 清濁을 分別하여 二便을 疏通시키는 작용, 즉 糟粕과 代謝後의 水液을 體外로 배설한다.³⁶⁾ <靈樞.營衛生會篇>에서는 下焦를 “下焦如瀆”³⁷⁾이라 표현하였는데 二便을 傳導 排泄하고 不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上, 中, 下焦는 各其 部位의 機能을 달리 하지만, 이들 상호간에는 有機的인 連繫性이 있다. 上焦의 氣는 中焦에 그 근원이 있고, 中焦의 生化作用도 下焦의 協同作用이 필요한 것이다.

三焦는 水穀을 引導하고 清濁을 分別함으로써 諸氣를 維持하게 하고 呼吸으로 氣血을 順行하게 하므로 氣血은 三焦의 작용으로 全身을 貫通順行하는 것이다. 이러한 作用은 나누면 十二經이 되고 합하면 三焦가 된다. 그러므로 三焦는 一焦라고 할 수 있다.³⁸⁾

2.2. 四焦의 四象의 背景, 部位 및 作用

2.2.1. 思想的 背景

四焦라는 용어는 東武 이제마가 처음 사용한 독창적 개념이다. 東武는 인체를 上下前後 및 內外表裏에 의한 陰陽偏差에 따라 네 부위로 나누고, 그 각 부위에 작용하는 氣의 상태를 인지하여 四焦로 나누었다. 그는 心身を 四元構造的 요소로 나누어 上下陰陽의 偏差와 대립적인 氣의 升降을 효율적으로 설명³⁹⁾하고 있다. 그의 이런 本體論的 개념은 周易에서 차용한 것이다.

周易에서 太極→兩儀→四象은 다시 四象→八卦→六十四卦로 가는 과정, 즉 本體에서 萬物로 分化하는 象을 나타낸 것이라면, 東武의 太極, 兩儀, 四象은 그 자체가 바로 本體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그의 독창적 견해가 있다. 그에게 있어서 太極, 兩儀, 四象은 단지 觀點의 分化이지 그것이 萬物을 形成하는 形成原理的 分化는 아니다.⁴⁰⁾ 易에서는 四象(太陽, 少陽, 太陰, 少陰)에 대해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兩儀에서 八卦로 이행하는 中間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東武는 四象을 오히려 가장 중요한 本質的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八卦는 단지 四象의 陰陽的 分化象 즉 四象의 兩面性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東

武는 宇宙萬物의 모든 현상을 四象類型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⁴¹⁾ 즉 東武는 이러한 개념을 周易에서 借用하였으되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그의 四象개념이 철학적 탐색과정에서 도출되어 醫學에 적용되고 四象人의 구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아니면 의학경험의 과정에서 마침내 四象人의 臟腑性理를 깨닫게 되어 이를 窮究하여 사상의학을 만들고 여기에 철학적 연구가 더해져 사상의학의 원리를 보충시켰는지 알 수는 없지만,⁴²⁾ 東武는 모든 事物과 現象을 四象類型的으로 파악하고 四象類型을 그의 哲學과 醫學을 설명하는 原理로서 또는 道具로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東武의 四象類型的 구조는 단순한 네가지 유형의 나눴이 아니라, 그 각각은 氣의 四象의 分化象에 따라서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그 특징이 哲學에 나타날 때는 1次元, 2次元, 3次元, 4次元 등의 次元의 구분으로 나뉘게 되고 그 특징이 인체의 生理構造에 나타날 때는 上部, 中上部, 中下部, 下部 등의 部位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氣의 分化象을 내포하고 있는 ‘四部’의 개념은 다시 ‘四焦’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⁴³⁾

東武는 자신의 四象哲學의 四象類型을 인체에 그대로 적용시켰는데 나와 자연과의 인식에서 구성되는 요소로서 天機를,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구성되는 요소로서 人事를 제시했다. 나와 天氣와의 인식의 통로로서 耳目鼻口를, 나와 他人과의 인식의 통로로서 肺脾肝腎을, 나의 ‘知’의 발현부위로서 頤臆臍腹을, 나의 ‘行’의 도구로서 頭肩腰臀을 구성하여 사회적 인간으로서 필요한 4대 構成要素를 각각의 4대 器官 및 部位와 관련지어 인체를 4大圈으로 나누어 설명⁴⁴⁾하였으며, 四焦를 인체의 形局氣像을 판단하기 위한 定位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心身을 四元構造의 요소로 나누어 上下陰陽의 偏差와 대립적인 氣의 升降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2.2. 部位

東醫壽世保元에서는 肺와 胃脘부위를 합하여 胸上背上以上을 上焦라 하고, 脾와 胃부위를 합하여 膈之間을 中上焦라 하고, 肝과 小腸부위를 합하여 腰臍之間을 中下焦라 하고, 腎과 大腸부위를 합하여 脊下臍下以下를 下焦라 命하였다.⁴⁵⁾ 그러나 부위적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며 시대적으로 해부학이 발달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이론자체가 세세하게 구역을 정의한 것도 아니었다. 臟腑論에서 肺부위는 脊下背上, 脾부위는 在膈, 肝부위는 在腰, 腎부위는 在腰脊이라 하였으니 이는 오늘날의 해부학적 위치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胃脘, 胃, 小腸, 大腸부위도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⁴⁶⁾ 비록 그 臟腑가 소재한 부위와 무관하게 위치하나 외부적 부위는 일정한 上下部位의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頤臆臍腹, 頭肩腰臀, 頭手腰足, 舌下臆間兩乳臍前陰毛際之內, 後四海부위인 頭腦 背脊 腰脊 및 膀胱, 背脊 胸腋腰脇脊曲과 腦脊之起勢 胸襟之包勢 腰圍之入勢 膀胱之坐勢 등은 모두 四焦의 부위적 개념속에 포괄되며 이들은 다른 표현을 빌었지만 모두 四焦의 대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東武가 臟腑論에서 말한 四臟과 四腑의 부위에 대한 개념은 肺脾肝腎 및 胃脘胃小腸大腸의 해부학적 위치라기보다는 기능적 발현처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四焦의 부위는 內部臟器에 대한 부위적 분할에 있어서 그 해부학적인 위치보다는 기능적인 氣의 발현부위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四焦란 인체를 上下陰陽 偏差에 따라 네 구역으로 나누어 인체의 생리 및 병리를 설명한 최대의 포괄적 기능을 갖는 大區域이라 할 수 있다.

2.2.3. 作用

四焦는 각각 臟腑의 생리적 기능을 포함하니, 인체가 필요로 하는 생리적 기초물질이 생

산되고 소모되어지는 생명활동영위의 大區域이 되며 이곳에는 생리적 轉化物質이 보존되는 前後四海가 존재한다. 또 氣의 偏差에 따라 各焦마다 독특한 上下内外表裏의 升降進退의 偏差를 가지고 그에 따른 생리적 병리적 특징을 만드는데 이에 따라 體質이 나뉘기도 한다.

그런데 四焦의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四焦 각각의 氣를 有機적으로 제어하는 어떤 原理가 있어야 하는데 東武는 이러한 原理를 氣의 升降概念으로 파악하였다. 氣의 升降상태를 대표하는 것은 肺脾肝腎의 四臟으로 肝과 肺는 氣液을 呼吸하는 門戶로서 肺는 呼하고 肝은 吸하며, 脾와 腎은 水穀을 出納하는 府庫로서 脾는 納하고 腎은 出한다. 그러나 이 四臟之氣로서 氣의 升降原理를 전부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여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⁴⁷⁾ 東武는 이를 ‘哀怒喜樂’ 四氣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 언급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四焦의 기능을 첫째 생명활동영위의 大區域, 둘째 四焦之氣 大小에 따른 체질의 구분, 셋째 四情과 四焦之氣로 나누어 살펴 고자 한다.

1) 생명활동을 영위하는 大區域

각각의 순환단위인 四焦에서 水穀의 四氣는 耳目鼻口, 肺脾肝腎, 胃脘胃小腸大腸 및 頭肩腰臀의 작용에 의하여 생리적 기능에 맞게 轉化되어 生成作用 및 消耗作用을 하게 된다.⁴⁸⁾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水穀의 溫氣는 胃脘에서 熱氣之輕清者가 상승하여 胃脘에서 津으로 化하고 舌下에서 津海를 이루고 耳의 廣博天時之聽力으로 津海의 清氣를 上焦에 充만시키고 神으로 轉化시켜 頭腦에서 髓海를 이루고 그것은 肺와 皮毛를 살리는 영양분이 된다. 여기서 上焦를 이루는 肺의 黨은 모두 水穀의 溫氣로서 자양되고 명칭은 다르나 津, 神, 髓 등은 모두 水穀之溫氣의 변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上焦는 水穀

의 溫氣로서 充만되고 이 溫氣는 인체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는 轉化를 하며 생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中上焦, 中下焦, 下焦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水穀의 熱氣는 胃에서 熱氣가 胃에서 膏로 化하고 兩乳사이에 膏海를 이루고 日의 廣博世會之視力에 의하여 膏海의 清氣를 中上焦에 充만시키고 氣로 轉化시켜 背脊에 膜海를 이루고 脾와 筋의 생리적 기능의 자양분이 된다. 따라서 中上焦는 水穀의 熱氣로 充만되어 인체가 요구하는 기능적 기초가 된다.

水穀의 涼氣는 小腸에서 水穀中 平淡한 涼氣가 油로 轉化되어 臍에서 油海를 이루고 鼻의 廣博人倫之嗅力으로 油海의 清氣를 中下焦에 充만시키고 血로 轉化시켜 腰脊에 血海를 조성하여 肝과 肉의 생리적 기능의 자양분이 된다. 따라서 中下焦는 水穀의 涼氣로 充만되어 이의 적절한 氣化에 의하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水穀의 寒氣는 大腸에서 涼氣之質重者가 液으로 轉化되어 前陰毛際之內에 液海를 이루고 口의 廣博地方之味力에 의하여 液海의 清氣를 下焦에 充만시키고 精으로 化하여 膀胱에 精海를 조성하여 腎과 骨의 생리적 기능을 자양하게 된다. 따라서 下焦는 水穀之寒氣로 充만되어 이의 적절한 氣化작용에 의하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四焦의 구체적 내용은 前後四海⁴⁹⁾로 요약할 수 있는데 前四海는 神氣血精을 化하는 津膏油液海로서 耳目鼻口의 근본이 되며 後四海는 神靈魂魄을 藏하는 髓膜血精海로서 肺脾肝腎의 근본이 된다.⁵⁰⁾ 인체는 비록 皮筋肉骨로 구성되고 機能을 지닌 器官으로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 있지만 이들은 다 兩大四海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⁵¹⁾ 頤臆臍腹에서 일어나는 津膏油液海에서는 神氣血精을 生成시키고, 頭肩腰臀에서 일어나는 髓膜血精海에서는 神氣血精을 消耗하고 있다. 이는 前四海와 後四海를 清濁에 따라 前後로 나누어서 相互循環,

前後相互不絶⁵²⁾하는 관계를 형성한다.⁵³⁾이는 肺脾肝腎과 耳目口鼻의 力에 의존하고 있다.⁵⁴⁾ 또한 水穀의 通路를 胃脘-胃-小腸-大腸-肛門⁵⁵⁾으로 한 것은 溫熱涼寒의 陰陽의 偏差에 따른 上下관계를 표현한 것이다.⁵⁶⁾

2) 四焦之氣 大小에 따른 체질구분

각각의 四焦를 구성하는 氣는 生成,轉化,消耗하는 하나의 단위로서 이들 사이에는 전체가 하나로서의 통합된 조절의 기구를 통하여 통합되어 차질없이 기능을 수행하지만⁵⁷⁾ 各焦마다의 분포하는 氣의 相異함으로 인하여 그의 生氣論的,生理論的,形態學的 差等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이러한 氣의 분포의 太過 不足에 따라 性情,體型氣像에서만이 아니라 生理的,病理的 現象도 差等的으로 발현되며 동일한 질병이라도 그의 治法은 각 체질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四焦기능의 大小에 따라 4가지 다른 臟理가 출현하여 太少陰陽人의 체질적 분포가 나타나니 이를 四象體質이라 한 것이다.⁵⁸⁾

太陽人의 肺大肝少란 생리적으로 水穀之溫氣의 순환로인 上焦의 氣의 공급과 순환 및 전화과정의 총체적인 太過현상으로 인하여 上焦之氣의 특성인 呼散之氣⁵⁹⁾는 太過인 반면,水穀之涼氣의 순환로인 中下焦의 氣의 공급과 순환 및 전화의 총체적 不足현상으로 中下焦之氣의 특성인 吸聚之氣는 不足하다는 것이다. 少陽人의 脾大腎少란 생리적으로 水穀之熱氣의 순환로인 中上焦의 氣의 공급과 순환 및 전화과정의 총체적인 太過현상으로 인하여 中上焦之氣의 특성인 納積之氣는 太過인 반면,水穀之寒氣의 순환로인 下焦의 氣의 공급과 순환 및 전화의 총체적 不足현상으로 下焦之氣의 특성인 出放之氣는 不足하다는 것이다. 太陰人의 肝大肺少란 생리적으로 水穀之涼氣의 순환로인 中下焦의 氣의 공급과 순환 및 전화과정의 총체적인 太過현상으로 인하여 中下焦之氣의 특성인 吸聚之氣는 太過인 반면,水

穀之溫氣의 순환로인 上焦의 氣의 공급과 순환 및 전화의 총체적 不足현상으로 上焦之氣의 특성인 呼散之氣는 不足하다는 것이다.

少陰人의 腎大脾少란 생리적으로 水穀之寒氣의 순환로인 下焦의 氣의 공급과 순환 및 전화과정의 총체적인 太過현상으로 인하여 下焦之氣의 특성인 出放之氣는 太過인 반면,水穀之熱氣의 순환로인 中上焦의 氣의 공급과 순환 및 전화의 총체적 不足현상으로 中上焦之氣의 특성인 納積之氣는 不足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太陽人,少陽人은 인체상부로 氣가 偏在되어 心的,肉體的 에너지의 발생이 陽性化되는 체질이며,太陰人,少陰人은 인체하부로 氣가 偏在되어 心的,肉體的 에너지의 발생이 陰性化되는 체질이다.

四焦之氣에 따라 體型氣像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四焦의 부위와 그 氣의 특성에 따라 盛壯과 孤弱의 부위와 특성이 나타난다.⁶⁰⁾

太陽人의 體型氣像은 上焦부위인 腦椎部位에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上焦之氣가 直升,直伸之力이 강하므로 頸椎以上으로 곧고 바른 형세를 가지고 있으며,반면 中下焦부위인 腰脇部에는 中下焦之氣의 放降,寬放之力의 不足으로 허리의 立勢가 약하게 나타난다.太陰人은 이와 반대이다.

少陽人은 中上焦부위인 가슴에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中上焦之氣의 橫升,能收之力이 강하므로 胸部가 包容할 듯한 형세를 가지고 있으며,반면 下焦부위인 臀部에는 下焦之氣의 陷降,屈強之力의 不足으로 膀胱의 坐勢가 약하게 나타난다.少陰人은 이와 반대이다.

3) 四焦之氣와 哀怒喜樂

哀怒喜樂의 개념은 內經의 七情의 개념을 四象類型的으로 取捨한 개념으로 四象類型的의 屬性을 가졌다는 점에서 東武의 哀怒喜樂의 개념은 그들과는 다른 獨創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東武의 哲學이나 醫學에서 일관되는 중심사상은 '氣의 四象

類型的 分化象'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哀怒喜樂 四氣의 概念은 가장 적절한 道具가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⁶¹⁾

四氣中에서 哀怒之氣는 陽氣로서 上向의 특성을 나타내고, 喜樂之氣는 陰氣로서 반대로 下降의 특성을 나타낸다.⁶²⁾ 上升之氣중 哀氣는 直升하고 怒氣는 橫升하여 운동의 속도와 방향이 다소 다름을 나타내며⁶³⁾, 따라서 哀氣는 怒氣보다 좀 더 陽的이며 그 氣의 형태는 怒氣보다 輕淸하다고 할 수 있다. 下降之氣중 樂氣는 陷降하고 喜氣는 放降하여 樂氣는 喜氣보다 좀 더 陰的이고 質重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哀怒喜樂之氣는 四焦의 분포상황을 보면 哀氣는 上焦에, 怒氣는 中上焦에, 喜氣는 中下焦에, 哀氣는 下焦에 분포한다.

哀怒喜樂 四氣의 속성 및 원리가 太少陰陽人의 臟腑大小를 설명하는데 운용될 때 그것은 性情의 개념 즉 性氣와 情氣의 개념⁶⁴⁾으로써 사용되었으며 四端論에서는 喜怒哀樂의 性情이 각기 肺脾肝腎 臟局의 大小를 형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⁶⁵⁾ 性情之氣는 哀怒喜樂의 四氣로서 性情의 表出상태에 따라 氣의 상태가 다르며 이에 따라 분포되어지는 부위 역시 다른 것이다. 太陽人의 경우 '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則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에서 보면 哀性遠散하면 氣가 肺에 생리적으로 작용하여 盛하게 되며, 怒情促急하면 氣가 脾에서 過亢되어 極하므로 이의 恒常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슷한 세력의 陰的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下焦보다는 中下焦之氣를 끌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 中下焦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氣의 升降은 어느 부위를 기준으로 上升下降하는 것이 아니고, 인체 전반적인 에너지의 陽氣化 혹은 陰氣化에 따른 그 氣의 특성과 四焦의 부위적 親和性에 따라 각각의 부위에 升降하며 모이게 된다.

또한 哀怒喜樂을 단지 四焦之氣의 升降原理를 설명하는 道具의 개념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四象說에서는 기존의학의 七情이 四情으

로 압축되고 다시 心慾, 體型氣像 및 臟理에까지 연결된다.⁶⁶⁾ 內經시대부터 정신과 육체의 상관성을 강조하여 <靈樞通天論>등에서 일부 體質과 관련된 感情 및 행동양태를 분석하고 있긴 하지만⁶⁷⁾ 內經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영향은 微少하며 歷代 醫家 中에서도 七情을 더 이상 확대 해석한 이도 없었다.

3. 考 察

三焦는 內經에서 그 文句가 처음 나타나며 四焦는 이제마가 그의 독창적 철학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用語이다.

三焦는 狹義에서는 膀胱과 관련된 '水道' 혹은 五臟六腑中 氣化와 관련된 一腑라는 의미를 가지며, 廣義에서는 인체에 相火之用으로 작용하여 全身의 생리기능조절과 관련되며 生化過程이 나타나는 全身공간의 나뉨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 三焦는 非正臟正腑, 有名無形으로서 全身생리기능을 조절한다. 또한 四焦는 氣의 分化象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인체의 上下陰陽의 偏差와 대립적인 氣의 升降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三焦와 四焦는 모두 인체내에서 그 실질적 기관을 찾을 수 없는 기능적인 개념이란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사상적 배경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證治醫學이 黃帝 內經에 그 原理의 原型을 두어 우주자연의 질서와 運轉원리는 인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陰陽五行의 循環原理에 입각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四象醫學은 儒學的 思考에서 출발하여 우주의 질서보다는 인간사회의 관계 즉 인간의 倫理道德에 基礎한 哲學을 배경으로 하고 四象類型的인 氣의 升降原理에 입각하여 형성된 의학이다. 三焦는 기존의 證治醫學의 陰陽五行의 思考를 배경으로한 개념이며, 四焦는 四象醫學의 四象類型的 思考를 배경으로한 개념이다.

部位로 볼 때 三焦에서 上焦는 橫膈以上の 胸部로 心,肺와 咽喉,頭面部를 포괄하며,中焦는 膈以下 臍以上の 上腹部를 가르키는데 胃전체 즉 胃의 上口에서 胃의 下口에 이르는 부위를 말하며,下焦는 胃以下の 部位와 臟器로 小腸,大腸,腎,膀胱 등이 이에 속한다.그러나 이러한 三焦의 부위는 실제에 있어서는 인체의 上,中,下의 부위명칭이 되어 버렸다.四焦에서는 肺와 胃脘부위를 합하여 胸上背上以上을 上焦라 하고,脾와 胃부위를 합하여 膈膈之間을 中上焦라 하고,肝과 小腸부위를 합하여 腰膈之間을 中下焦라 하고,腎과 大腸부위를 합하여 脊下膈下以下를 下焦라 命하였다.이러한 四焦의 부위는 실제 해부학의 위치와 동일하지 않고 기능적인 氣의 발현부위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비록 四焦의 부위가 그 臟腑의 소재한 부위와는 무관하지만 외부적 위치는 일정한 上下부위의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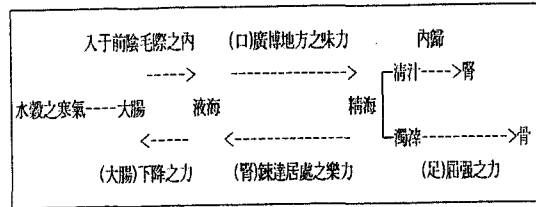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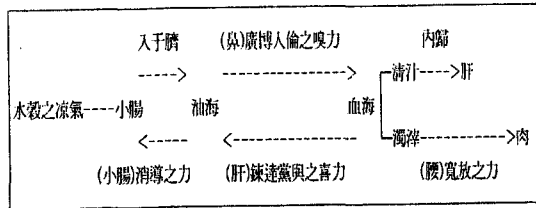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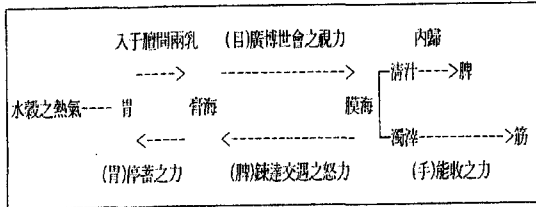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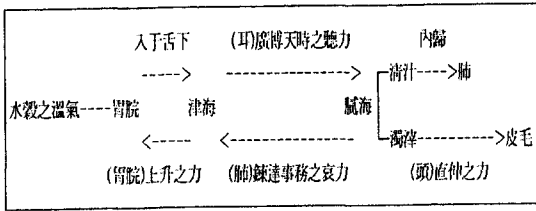
각각의 부위를 비교하여 보면 三焦의 上焦는 橫膈以上の 胸部,四焦의 上焦는 胸上背上以上으로 그 부위가 같다.三焦의 中焦는 膈以下 臍以上,四焦의 中上焦는 膈膈之間으로 모두 脾와 胃部位를 뜻하는 것이니 그 부위가 같다.三焦의 下焦는 胃以下の 부위,四焦의 中下焦는 腰膈之間,下焦는 脊下膈下以下로 三焦의 下焦는 四焦의 中下焦,下焦를 합한 부위와 같다.三焦의 上,中,下焦와 四焦의 上,中上,中下,下焦는 上下부위에 따른 순서임에는 동일하지만 三焦에는 上下의 순서만 있고 前後,表裏의 개념은 찾아 볼 수가 없다.

作用面에서 보면 三焦는 全身의 氣化를 담당하는 “主持諸氣”의 작용과 水液運行的 通路라는 두 기능으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 三焦는 氣의 升降出入의 通路,氣化의 장소로 全身의 氣化를 주관하는데 인체의 氣는 三焦를 통해 五臟六腑에 이르고 全身에 충만된다.둘째 三焦는 水道를 疏通시키고 水液을 運行하는 작용이 있으며 水液升降出入의 通路가 된다.이 두

기능은 한 가지 기능의 두 가지 側面으로서 상호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른 各焦의 기능을 보면 上焦는 呼吸을 담당하고 血脈을 주관하며 음식물의 精氣를 體表 및 體內로 散布시켜 養臟腑,溫分肉,充腠理,濡關節,熏膚,充身,澤毛하며,그 중 濁한 성분은 水道를 通調케 하는 기능에 의해 膀胱으로 내려 보낸다.中焦는 胃가 水穀을 받아 들고 그것을 腐熟시킨 다음 脾의 運化作用에 의해 水穀으로부터 精微로운 氣가 생겨나며 이로써 氣血이 化生한다.下焦는 清濁을 分別하여 糟粕과 代謝後의 水液을 二便으로 배설시킨다.

四焦는 각각 臟腑의 생리기능을 포함하는 인체의 생리적 기초물질이 生成,消耗되는 생명 활동영위의 大區域이며,各焦마다 분포하는 氣의 相異 즉 四焦之氣大小에 따라 體質의 구분이 생기는데 이러한 四焦之氣의 升降原理는 哀怒喜樂의 四氣로 설명되어진다.

四焦에서 水穀의 溫,熱,涼,寒氣는 胃脘胃小腸大腸,耳目鼻口,頭肩腰腎,肺脾肝腎의 작용에 의해 생리적 기능에 맞게 轉化되어 生成作用 및 消耗作用을 하게 된다.이러한 四焦의 구체적 내용은 前後四海로 요약할 수 있는데 前四海는 津膏油液海로서 耳目鼻口의 근본이 되며 後四海는 髓膜血精海로서 肺脾肝腎의 근본이 된다.⁶⁸⁾額臆臍腹에서 일어나는 津膏油液海에서는 神氣血精을 生成시키고,頭肩腰腎에서 일어나는 髓膜血精海에서는 神氣血精을 消耗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前四海와 後四海는 肺脾肝腎과 耳目口鼻의 力에 의해 相互循環,前後相互不絶하는 관계를 형성한다.水穀之四氣가 前後四海로 循環하는 관계를 도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四焦는 인체전반에 걸친 생리적 기초물질이 생성,소모되는 생명활동의 大區域이며,前後四海는 이러한 四焦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四焦는 各焦마다 그 氣의 분포가 太過 不足함에 따라 각자 특이한 性情,體型氣像 및 差等的 生理,病理現象이 나타나며 이러한 四焦之氣의 大小에 따라 4가지 다른 臟理가 출현하여 太少陰陽人의 체질적 분포가 나타난다. 太陽人은 呼散之氣(上焦之氣)의 太過와 吸聚之氣(中下焦之氣)의 不足으로 肺大肝少하며, 少陽人은 納積之氣(中上焦之氣)의 太過와 出放之氣(下焦之氣)의 不足으로 脾大腎少하며, 太陰人은 吸聚之氣(中上焦之氣)의 太過와 呼散之氣(上焦之氣)의 不足으로 肝大肺少하며, 少陰人은 出放之氣(下焦之氣)의 太過와 納積之氣(中上焦之氣)의 不足으로 腎大脾少하다.

東武는 그의 四象類型的 氣의 升降을 哀怒喜樂 四氣의 개념으로써 표현하였다. 哀怒之氣는 上升之氣로 각각 直升,橫升하여 上焦,中上焦에 분포하고 喜樂之氣는 下降之氣로 각각 放降,陷降하여 中下焦,下焦에 분포한다. 哀怒喜樂 四氣는 太少陰陽人의 臟腑大小를 설명할 때는 性氣와 情氣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性情의 表出상태에 따라 氣의 상태가 다르며 이에 따라 升降의 緩速과 特性이 다르며 분포되어지는 부위 역시 다른데 이것이 喜怒哀樂의 性情이 각기 肺脾肝腎臟局의 大小를 형성하는 所以가 된다. 哀怒喜樂는 또한 內經의 七情개념을 四象類型的으로 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의학의 七情이 四情으로 압축되고 다시 心慾,體型氣像 및 臟理에까지 연결되어 心身一如의 心身醫學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

三焦와 四焦는 생명활동의 大區域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三焦가 六腑의 하나로 臟理概念에 치중되어 인체의 부위를 설명하고 있다면, 四焦는 心慾,體型氣像 및 臟理를 포함한 全機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三焦는 生理的作用만을 언급하지만, 四焦는 인간생활전체를 포함한 개념으로 그 大小에 따라 체질이 구분될 뿐 아니라 心身一如의 心身醫學적 개념도 포함한다.

또한 三焦와 四焦의 '焦'는 에너지의 燃燒 및 消耗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인체가 필요로 하는 기초물질을 消耗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말한다. 이와 함께 四焦는 四海의 개념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는데 '海'란 生命의 源泉 및 貯藏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기초물질을 生成하는 기능도 동등하게 제시했다. 즉 三焦와 四焦는 모두 生成作用 및 消耗作用을 하지만 四焦는 四海라는 用語를 제시해 生成作用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三焦와 四焦는 모두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인 氣가 그 작용을 발휘하게 되는데 三焦가 氣의 上下升降을 中心으로 한다면, 四焦는 上下

升降뿐만 아니라 各焦마다의 독특한 橫的인 氣의 循環과 그 偏差를 中心으로 한다.

三焦와 四焦를 比較表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4. 結 論

三焦와 東醫壽世保元의 四焦에 대하여 思想的 背景, 部位, 作用을 中心으로 비교 고찰한 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思想的 背景을 中心으로 보면 三焦는 內經에서 그 文句가 처음 나타나며 기존 證治醫學의 陰陽五行的 思考와 우주자연의 질서 및 운행원리는 인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시각을 背景으로 한 개념이라 볼 수 있으며, 四焦는 東武가 처음 사용한 用語로 人間사회의 윤리도덕에 기초한 철학과 四象醫學의 四象類型的 思考를 背景으로 한 개념이다.

2. 部位를 中心으로 보면 四焦의 上焦는 三焦의 上焦와, 四焦의 中上焦는 三焦의 中焦와, 四焦의 中下焦와 下焦를 속한 부위는 三焦의 下焦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위는 해부학적 위치와 동일하지 않으며 三焦와 四焦는 上下部位에 따른 순서임에는 동일하지만, 三焦에는 上下의 순서만 있고 四焦에서와 같은 前後, 表裏의 개념은 찾아 볼 수가 없다.

3. 作用을 中心으로 보면 三焦와 四焦는 생명활동의 大區域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三焦가 六腑의 하나로 臟理概念에 치중되어 인체의 부위를 설명하고 있다면, 四焦는 心慾, 體型氣像 및 臟理를 포함한 全 機能을 설명하고 있다.

4. 生成과 消耗作用을 中心으로 보면 三焦와 四焦는 모두 生成作用, 消耗作用을 하지만 四焦는 四海라는 用語를 제시하여 生成作用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三焦와 四焦의 比較〉

	三 焦		四 焦
名稱의 始發	內經		東醫壽世保元
思想的 背景	證治醫學의 陰陽五行的 思考		四象醫學의 四象類型的 思考
部 位	上焦: 膈以上の 胸部 中焦: 胃上口-胃下口 下焦: 胃以下		上焦: 胸上背上以上 中上焦: 膈之間 中下焦: 腰臍之間 下焦: 脊下臍下以下
作 用	1. 全身氣化 담당 2. 水液運行 通路	上焦: 呼吸, 循環 中焦: 消化, 吸收, 營養 下焦: 排泄, 藏精	1. 生命活動영위의 大區域 2. 喜怒哀樂의 性情에 따른 四焦之氣의 升降偏差 3. 四焦之氣의 大小偏差에 따른 體質의 구분 4. 心慾과 臟腑에 연결된 心身醫學的 機能
比 較	*臟理개념에 치중 *生成作用의 구체적 표현 없음 *氣의 上下升降 爲主 (橫的인 循環概念 없음)		*心慾, 體型氣像, 臟理를 포함 *生成作用의 구체적 표현 없음 있음 (四海라는 用語 제시) *氣의 上下升降뿐만 아니라 各焦의 橫的인 氣의 循環과 偏差 爲主

5. 氣의 作用을 中心으로 보면 三焦가 氣의 上下升降을 爲主로 한다면, 四焦는 上下升降과 함께 各焦의 橫的인 氣의 循環과 그 偏差를 爲主로 한다.

以上에서 三焦와 四焦를 思想的 背景, 部位, 作用面에서 살펴본 결과, 上下部位에서는 類似 하지만, 그 思想的 背景과 作用은 다르므로 別個의 概念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1.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성보사. 1988. pp85-86, p398
2. 杜鎬京: 東醫腎系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93. pp43-51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書院. 1986. pp1-2, p7, pp9-10, pp19-24, p138
4.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서울. 행림출판. 1985. p80, p86, p88, p91
5.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7. p62, pp243-244
6. 金鍾元, 高炳熙, 宋一炳: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대한 考察.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2. No.1. 1990. p93, pp95-96, p100
7.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대한 考察.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4. No.1. 1992. p5, pp8-9, p13, pp18-20, p23, pp25-26
8. 李庚昊, 安圭錫: 張仲景의 三焦認識에 관한 文獻的 考察. 서울. 동의병리학회지 Vol.6. 1991. p213
9. 池圭鎔, 安圭錫: 東醫壽世保元 四端論中 四情의 작용기전 및 병리변화에 대한 고찰.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5. No.1. 1993. p53, p55, p58
10. 池圭鎔, 安圭錫: 四象醫學과 既存醫學의 關係 및 解釋에 대한 研究.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1. No.1. 1989. p67, p69, p73, pp81-82
11. 唐宗海: 血證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 pp11-12
12.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 p78
13.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 p29, pp197-201, p271, p500
14. 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中國. 正言出版社. 1965. p215, p253, p377
15. 李 梈: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6. p366
16. 印會河: 東洋醫學叢書1-1. 서울. 一中社. 1990. pp46-47
17.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91
18. 華 佗: 華佗中藏經. 自由出版社. p27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Sanjiao(三焦) and Sacho(四焦) in “Dong-Eui-Su-Se-Bo-Won(東醫壽世保元)”

Lee Kyung-Ae, Park Seong-Sik, Lee Won-Chul.
Dep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Sacho on the basis of “Sa-Sang philosophy(四象哲學)”.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Sanjiao and Sacho were investigated, centering on the philosophical basis, region, action.

The conclusion w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Viewed in the light of a philosophical basis, Sanjiao is first recorded in Nae-Kyung(內經), a concept that Yin-Yang(陰陽), Oh-Hang(五行) in Nae-Kyung Medicine, the cosmos's order and its moving rule could be directly applied to human body. On the contrary Sacho is a term first used by Lee Jae-Ma, a human-oriented concept that formed in Confucianism system, based on Sa-Sang type classifying in Sa-Sang Medicine.

2. Viewed in the light of a region, the upper part of Sacho is similar to the upper-jiao of Sanjiao, the mid-upper part of Sacho to the middle-jiao of Sanjiao, the mid-lower and the lower parts of Sacho to the lower-jiao of Sanjiao. But these regions are not equal to anatomical regions. Sanjiao and Sacho is similar concept from the view point of the upper and lower order, but Sanjiao has only a concept of the upper and lower order, doesn't have a concept of the front and the rear, inside and outside.

3. Viewed in the light of a action, Sanjiao and Sacho is a similar concept from the view point of a large boundary in the life activity. Sanjiao explains the region of human body, setting importance on the viscera physiology, on the contrary Sacho explains the whole function of human body including one's heart's desire, physical constitution and the visceral physiology.

4. Viewed in the light of producing-wasting activity, sanjiao and Sacho have both producing action and wasting action, but Sacho has a more concrete concept of producing action by using a term-Sa Hae(四海).

5. Viewed in the light of vital energy(氣)'s action, Sanjiao give the first consideration to the rising and falling action of vital energy, on the contrary Sacho give the first consideration to the transversal circulation of vital energy and the deviation of it in each part.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Sacho must be discussed separately from Sanjiao, it is recommended that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Sacho on the basis of Sa-Sang philosophy.

- 1)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대한 考察.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4.No.1.1992.p5
- 2) <靈蘭秘典論> “三焦者決瀆之官 水道出焉”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p78
<營衛生會篇>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p201
오늘날 볼 때 <靈蘭秘典論>의 三焦는 실제 <營衛生會篇>의 下焦에 해당된다.
- 3) 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p253
- 4) 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p253
- 5) 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p215
- 6)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7.p244
- 7) 李庚昊, 安圭錫, 張仲景의 三焦認識에 관한 文獻的 考察. 서울. 동의병리 학회지 Vol.6.1991.p213
- 8) “三焦 卽 人身上下內外相聯之油膜也.” 唐宗海. 血證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p11-12
- 9)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pp197-200
- 10) 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p215
- 11) “上焦出於胃上口 并咽以上 貫膈而布胸中 走腋 循太陰之分而行 還至陽明 上至 舌...中焦亦并胃中 出上焦之後...下焦者 別迴腸 注於膀胱而滲入焉”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pp197-200
- 1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7.p244
- 13) 印會河. 東洋醫學叢書1-1. 서울. 一中社. 1990.p47
- 14) 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p215
- 15) 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p253
- 16) 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1965.p377
- 17)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정보사. 1988.p86
- 18)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p271
- 19)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p199
- 20) 李挺. 編註醫學入門(臟腑篇). 서울. 대성문화사. 1986.p366
- 21) 華佗. 華佗中藏經. 自由出版社. p27
- 22) 巢元方.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p91
- 23)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p78
- 24)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p29
- 25) 印會河. 東洋醫學叢書1-1. 서울. 一中社. 1990.pp46-47
- 26) <靈樞. 決氣篇>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 充身 澤毛 若霧露之溉 是謂氣.”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p271
- 27) 印會河. 東洋醫學叢書1-1. 서울. 一中社. 1990.p46
- 28)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정보사. 1988.p86,p398
- 29)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p201
- 30) <靈樞. 營衛生會篇> “中焦...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 而爲血 以奉生身...”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p199
- 31) 印會河. 東洋醫學叢書1-1. 서울. 一中社. 1990.p46
- 32)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정보사. 1988.p86,p398
- 33)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p201
- 34) <靈樞. 營衛生會篇> “下焦者 別迴腸 注於膀胱 而滲入焉 故水穀者 常并居於胃中 成糟粕 而俱下於大腸 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焉.”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p200
- 35) 印會河. 東洋醫學叢書1-1. 서울. 一中社. 1990.p46
- 36)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서울. 정보사. 1988.p86,p398
- 37)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 台聯國風出版社. 1976.p201
- 38) 杜鎬京. 東醫腎系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93.p43
- 39) 池圭鎔, 安圭錫. 四象醫學과 既存醫學의 關係 및 解釋에 대한 研究. 서울. 사상의학회지 Vol.1. No.1. 1989. p67

- 40)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대한 考察. 서울.사상의학회지Vol.4.No.1.1992.p8
- 41)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대한 考察. 서울.사상의학회지Vol.4.No.1.1992.p9
- 42) 그의 저서에 나타난 思想들의 연대순으로 추적해 볼 때 초기의 思想 즉 <格致彙>의 '儒略'이나 '獨行篇'등에서는 단지 四象類型的 개념이 형성되는 정도에 그치던 것이 <東醫壽世保元>에 이르러서는 철학적 개념들과 人體構造問에 四象類型的 結合의 완성된 형태를 이루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철학적 탐색과정으로부터 四象醫學이 도출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대한 考察. 서울.사상의학회지Vol.4.No.1.1992.p23
- 43)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대한 考察. 서울.사상의학회지Vol.4.No.1.1992.pp18-19
- 44) 天氣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友 四曰事務.耳聽天時 目視世會 鼻臭人倫 口味地方.肺達事務 脾合交友 肝立黨與 腎定居處.額有籌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才幹 臀有方略.耳目口鼻觀於天也 肺脾肝腎入於人也.額臆臍腹行其知也 頭肩腰臀行其行也.(性命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서울.杏林書院.1986.pp1-2
- 45) 肺部位在脊下背上 胃脘部位在額下胸上 故背上胸上以上爲之上焦
脾部位在膻 胃部位在膈 故膻膈之間爲之中上焦
肝部位在腰 小腸部位在臍 故腰臍之間爲之中下焦
腎部位在腰脊下 大腸部位在臍腹下 故脊下臍下以下爲之下焦(臟腑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서울.杏林書院.1986.pp19-20
- 46) 腰脇者 肝之所住着處也 胸腋者 脾之所住着處也
脊曲者 腎之所住着處也 背脊者 肺之所住着處也(四端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서울.杏林書院.1986.p10
- 47) 왜냐하면 四臟之氣는 四臟 각각의 기능 즉 氣液代謝나 水穀代謝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四臟之氣의 상태일 뿐이고 四焦 전체 즉 인체의 생명활동 전부를 설명하는 氣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대한 考察.서울.사상의학회지Vol.4.No.1.1992.p19
- 48) 水穀之溫氣自胃脘而化津 入于舌下爲津海 津海者津之所舍也 津海之清氣出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腦海 腦海者神之所舍也 腦海之腦汁清者 內歸于肺 濁涕外歸于皮毛 故胃脘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黨也.
水穀之熱氣自胃而化膏 入于臆間兩乳爲膏海 膏海者膏之所舍也 膏海之清氣出于目而爲氣 入于背脊而爲膜海 膜海者氣之所舍也 膜海之膜汁清者 內歸于脾 濁涕外歸于筋 故胃與兩乳目背脊筋 皆脾之黨也.
水穀之涼氣自小腸而化油 入于臍爲油海 油海者油之所舍也 油海之清氣出于鼻而爲血 入于腰脊而爲血海 血海者血之所舍也 血海之血汁清者 內歸于肝 濁涕外歸于肉 故小腸與臍鼻腰脊肉 皆肝之黨也.
水穀之寒氣自大腸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爲液海 液海者液之所舍也 液海之清氣出于口而爲精 入于膀胱而爲精海 精海者精之所舍也 精海之精汁清者 內歸于腎 濁涕外歸于骨 故大腸與前陰口膀胱骨 皆腎之黨也.(臟腑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서울.杏林書院.1986.pp20-21
- 49) 여기서 '海'란 '生命의 流動'이나 '生命' 그 자체로 생각되며 '海'란 아마도 '焦'의 別稱으로, '焦'란 에너지의 燃燒요 消耗인데 反하여 '海'는 생명력의 發祥地이며 源泉이며 貯藏處인 것이다.
洪淳用,李乙浩. 四象醫學原論.서울.행림출판.1985.p88
- 50) 頭腦之腦海肺之根本也 背脊之膜海脾之根本也
腰脊之血海肝之根本也 膀胱之精海腎之根本也
舌之津海耳之根本也 乳之膏海目之根本也
臍之油海鼻之根本也 前陰之液海口之根本也(臟腑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서울.杏林書院.1986.pp23-24
- 51) 洪淳用,李乙浩. 四象醫學原論.서울.행림출판.1985.p91
- 52) 津海之濁滓則胃脘以上昇之力 取其濁滓而以補益胃脘
膏海之濁滓則胃以停蓄之力 取其濁滓而以補益胃
油海之濁滓則小腸以消導之力 取其濁滓而以補益小腸
液海之濁滓則大腸以下降之力 取其濁滓而以補益大腸 (臟腑論)
耳以廣博天時之聽力提出津海之清氣充滿於上焦爲神而注之頭腦爲腦積累爲腦海
目以廣博世會之視力提出膏海之清氣充滿於中上焦爲氣而注之背脊爲膜積累爲膜海
鼻以廣博人倫之嗅力提出油海之清氣充滿於中下焦爲血而注之腰脊爲血積累爲血海
口以廣博地方之味力提出液海之清氣充滿於下焦爲精而注之膀胱爲精積累爲精海 (臟腑論)

肺以鍊達事務之哀力 吸得臍海之清汁 入于肺 以滋肺元而內以擁護津海 鼓動其氣 凝聚其津 脾以鍊達交友之怒力 吸得膜海之清汁 入于脾 以滋脾元而內以擁護膏海 敲動其氣 凝聚其膏 肝以鍊達黨與之喜力 吸得血海之清汁 入于肝 以滋肝元 而內以擁護液海 敲動其氣 凝聚其液 (臟腑論)

臍海之濁滓則頭以直伸之力 鍊達之而成皮毛 膜海之濁滓則手以能收之力 鍊達之 而成筋 血海之濁滓則腰以寬放之力 達之而成肉 精海之濁滓則足以屈強之力 鍊達之而成骨 (臟腑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杏林書院.1986.pp21-23

- 53) 金鍾元,高炳熙,宋一炳.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대한 考察. 서울.사상의학회지Vol.2.No.1.1990.p93
- 54) 洪淳用,李乙浩. 四象醫學原論. 서울.행림출판.1985.p86
- 55) 水穀自胃脘而入于胃 自胃而入于小腸 自小腸而入于大腸 自大腸而出于肛門者 水穀之都數停蓄於胃而蒸蒸胃熱氣 消導於小腸而平熱為涼氣 熱氣之輕清者 上昇於 胃脘而為溫氣 涼氣之質重者 下降於大腸而為寒氣. (臟腑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杏林書院.1986.p20
- 56) 金鍾元,高炳熙,宋一炳.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대한 考察. 서울. 사상의학회지Vol.2.No.1.1990.p93
- 57) 이러한 통합은 心の 통제에 의해 가능하다. 金鍾元,高炳熙,宋一炳.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대한 考察. 서울.사상의학회지Vol.2.No.1.1990.p96
- 58) 人稟臟理有四不同 肺大而肝小者名曰太陽人 肝大而肺小者名曰太陰人 脾大而腎 小者名曰少陽人 腎大而脾小者名曰少陰人.(四端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杏林書院.1986.p7
- 59) 肺以呼肝以吸 肝肺者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腎以出 腎脾者出納水穀之府庫也.(四端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杏林書院.1986.p9
- 60) 太陽人體型氣像 腦脊之起勢盛壯而腰圍之立勢孤弱
少陽人體型氣像 胸襟之包勢盛壯而膀胱之坐勢孤弱
太陰人體型氣像 腰圍之立勢盛壯而腦脊之起勢孤弱
少陰人體型氣像 膀胱之坐勢盛壯而胸襟之包勢孤弱(四象人辨證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杏林書院.1986.p138
- 61)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대한 考察. 서울. 사상의학회지Vol.4.No.1.1992.p20
- 62) 哀怒之氣上昇 喜樂之氣下降.(四端論) 서울.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杏林書院.1986.p10
- 63)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四端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杏林書院.1986.p10
- 64) 性氣 즉 哀怒喜樂之性은 四氣의 順動상태를 말하고,情氣 즉 哀怒喜樂之情은 氣의 逆動상태를 말한다.順動이라 함은 氣의 생리적 流注상태를 말함이고, 逆動이라 함은 氣의 병리적 過多 分布상태를 말함이다.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대한 考察. 서울.사상의학회지Vol.4.No.1.1992.p23
- 65) 太陽人哀性遠散而怒情促急 哀性遠散則氣注肺而肺益盛 怒情促急則氣激肝而肝益削 太陽之臟局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
少陽人怒性宏抱而哀情促急 怒性宏抱則氣注脾而脾益盛 哀情促急則氣激腎而腎益削 少陽之臟局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
太陰人喜性廣張而樂情促急 喜性廣張則氣注肝而肝益盛 樂情促急則氣激肺而肺益削 太陰之臟局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
少陰人樂性深確而喜情促急 樂性深確則氣注腎而腎益盛 喜情促急則氣激脾而脾益削 少陰之臟局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四端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杏林書院.1986.p9
- 66) 池圭鎔,安圭錫. 東醫壽世保元 四端論中 四情의 작용기전 및 병리변화에 대한 고찰. 서울.사상의학회지 1993.Vol.5.No.1.p53
- 67) 蓋有太陰之人 少陰之人 太陽之人 少陽之人 陰陽和平之人. 凡五人者 其態不同 其筋骨氣血各不等---.(靈樞.通天論)
楊維傑.黃帝內經靈樞譯解.台聯.台聯國風出版社.1976.p500
- 68) 인체는 비록 皮筋肉骨로 구성되고 機能을 지닌 器官으로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兩大四海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